

저소득가정 지원 프로그램 ‘공모’

아름다운동행 11월말까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2012년 NGO단체 저소득가정 지원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한편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1월30일까지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문화 체험활동 및 교육활동을 주제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NGO 단체이다. 최종 선정된 2개 기관에는 각각 1000만원을, 6개 기관에는 각각 600만원을 지급한다. 아름다운동행은 “자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어려운 곳에 골고루 화향될 수 있도록 많은 기관의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지난 9월30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팔만대장경 모형 경판을 선물하고 있다.

17일 비구니 회장 선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오는 17일 오후1시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제10대 회장 선출을 위한 제7차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9월2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 명성스님에 이어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비구니회는 회칙에 따라 회장 선출을 위한 공고문을 내고 7일 오후5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다.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수행이력서와 승적증명서, 10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구니회 회장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허정철 기자**

■ 프랑스 순방 성과

한국불교 세계화와 세계평화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해 9월 미국을 순방한데 이어 지난 9월27일부터 10월3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순방했다. 프랑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문화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불교신자가 100만 명에 이를 만큼 유럽 내 대표적인 불교 번성 국가로 손꼽히는 만큼 한국불교를 유럽에 알릴 교두보로서 적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5명의 한국불교대표단은 방불(訪佛)기간 동안 주불한국문화원, 파리7대학, 유네스코 본부 등지를 잇따라 찾아 사찰음식과 영산재, 참선, 템플스테이 등을 주제로 1700년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현지인과 유네스코 각국 대사에게 알렸다.

특히 육류와 빵을 주식으로 한 프랑스인에게 채식 위주의 한국사찰음식은 그동안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으로 호평을 받았다. 전 세계 65개 백화점을 운영 중인 라파에르백화점의 토마스 식음료총지배인은 “한국 불교와의 만남 리셉션”에 참석해 한국사찰음식을 맛보고 내년께 라파에

르백화점 내에 한국사찰음식전문점을 개원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유네스코 집행부와 각국 대사들도 한국사찰음식의 뛰어난 맛과 더불어 사찰음식을 먹는 공양이 단순한 음식 섭취가 아니라 수행의 또 다른 방편이며 생명존중사상이 담겨져 있다

전통문화 관심 높아

세계화 가능성 ‘확인’

연등축제 세계유산 등재

유네스코와 긴밀협조 등

‘국제협력 증진’ 길 열어

는 사실에 감탄사를 연발할 만큼 사찰음식이 해외교교의 중요한 방편임을 확인시켰다.

이번 프랑스 순방에서는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와 회담을 통해 연등축제 등 유무형의 한국불교문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또한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툼비니 복원봉사도 유엔과 유네스코, 한국불교 등 각국 불교단체가 힘을 합쳐 복원을 추진기로 했으며 빠르면 내년 3월에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함께 네팔 툼비니 현장을 직접 찾아 향후 복원 봉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프랑스 내 아시아전통박물관인 기메박물관을 방문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성보박물관인 불교중앙박물관과 유물 상호 교환 전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한국학과를 운영중인 파리7대학 방문에 빈센트 버거 총장에게 불교문화 연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파리7대학과 동국대 간의 협약 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는 등 한국불교와 파리7대학간의 교류증진에도 기여했다. 또한 유럽 내 최대 범기독교 공동체인 ‘폐제공동체’를 방문해 템플스테이와의 접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

▶관련기사 3면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제도 남겨졌다. 아시아권을 제외한 세계 속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은 극히 미약한 실정임을 미국 순방에 이어 이

번 프랑스 순방에서도 확인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세계 속에 한국 불교는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임을 실감했다고 토로한 것도 이같은 현실 때문이다. 또한 한국불교와의 만남 행사가 진행된 주불한국문화원의 공간적 협소함과 치밀하지 못한 행사 준비와 운영도 욕에 티로 손꼽혔다. 하지만 아쉬움에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해외교교에 전념할 인재 육성 등 새로운 대안 모색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프랑스인의 깊은 관심을 직접 확인했다는 성과를 거둔 만큼 향후 치밀한 준비를 통해 다시 프랑스 문물 두드린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됐다.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스님은 “한국불교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면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동시에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프랑스인의 높은 관심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한국불교 세계화의 가능성이 높을 것” 또한 알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였다”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실수를 교훈삼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파리=박인탁 기자

社告

’2012 신춘문에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2 불교신문 신춘문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한국불교 문단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해 온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춘문에에 불교문학에 관심있는 신진작가들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 응모기간: 2555(2011)년 11월 14일(월)~12월 14일(수)까지
- 응모대상: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 공모분야: -단편소설 부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시조 부문(각 5편, 5편이상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동화 부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평론 부문(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상금: -단편소설 450만원
-동화/평론 각 350만원
-시·시조 250만원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작 선정

당선작발표: 2556(2012)년 1월1일 신년특집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유의사항

- 결봉투에 신춘문에 현상공모작품(응모분야표)임을 명시해주시고.
-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본 작품에 한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상작에 대한 판권은 본사가 소유합니다.
- 작품 맨 첫장에 별도로 응모분야, 인적사항(성명, 나이, 주소, 연락처)을 기입해주시고, (작품내용 안에 인적사항 명기하지 마십시오)
-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응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skykim2000@bulgyo.com)

문의: (02)730-4488(신춘문예 담당)

불교신문사

전통燈 경연대회... 전승자 발굴

11월 18일까지 작품접수

부처님오신날을 아름답게 수놓는 등(燈)의 전통적인 계승과 발전을 위한 경연대회가 열린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전승 전통등 경연대회’를 열고, 오는 11월16일부터 18일까지 작품을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통등의 복원과 계승뿐 아니라, 전통등 제작자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전승시키기 위

한 목적이 있다. 최근 들어 전통등이 사라지고 있어 맥이 단절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이번 대회에 출품할 작품은 팔모등, 연꽃등, 수박등, 복등, 초롱등 등 종이와 전통방식으로 제작한 등을 대상으로 한다. 30~60cm 이내로 만들어진 되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접수한다. 경연대회 결과는 오는 11월30일 발표할 예정이며, 11월말 전시회도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김하영 기자**

지면안내

‘숨겨진으로... 도솔천으로...’

도천·정무 대종사 영결식 현장



7면

임기 5년 퇴임 앞둔

포교원장 혜총스님



8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동성스님이 한 얘기는 ...



9면

사부대중이 함께 여는 책세상 13~15면



제3회 불영사

사찰음식 문화 향연 및 산사 음악회

불교 2555년 10월 15일 토요일



1부_ 11:00 ~ 13:00
2부_ 13:30 ~ 14:30

퓨전오케스트라 ‘풍류21’



사찰음식 전시 및 공양

다도 체험 및 시음

토원 신동수 도자전

일일장터

간장, 된장, 고추장 및 밀찬친류

사찰음식은 자연음식입니다.
자연을 통해 휴식을 얻을 수 있고,
자연을 통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그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건강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꿈꿀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성공도 명예도 아름다운 인생의 삶도 진리의 삶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나를 치유해 주기도 하고, 나를 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진리는 자연의 본질을 아는 힘입니다. 절기는 어김없이 찾아들고, 차향은 가을하늘에 가득합니다. 올해 세 번째로 맞는 사찰음식 축제 그리고, 예쁜 가을 명상음악 문화 향연의 자리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불기2555(2011)년 10월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불영사

주지 心田一耘 合掌

